



EXPO 2012 YEOSU KOREA

개최도시에서 배운다

미래 활용 계산 못하면 '거대한 흉물'



오사카 엑스포가 끝나고 수익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엑스포랜드. 엑스포랜드는 최근 시설 보수에 들어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오사카=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⑦ 사후활용 교훈 - 오사카 ④

최근 취재진이 오사카 만국박람회 기념공원을 찾았을 때 평일이었던 탓인지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게다가 한겨울이어서 풍경은 은씨년스러웠다.

1970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엑스포가 열렸던 오사카 만국박람회 기념공원은 오사카 번화가에서 모노레일로 1시간 거리에 있다. 박람회 기념공원은 애초에는 대부분과 논과 밭이었다. 대나무가 우거지고 일본 정원이 자리했던 한적한 곳임을 감안하면 평상시에 인적이 드문 것은 당연하다.

오사카 엑스포가 끝난 후 박람회장에는 사후활용 차원에서 놀이공원이 들어섰다. 그 후 같은 장소에 '만박(萬博) 기념공원'이 조성되면서 몇 가지 시설이 추가돼 1972년 '엑스포랜드'라는 종합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다.

엑스포랜드 안에는 40종류가 넘는 각종 모험기구와 5개의 레스토랑, 기념품 판매점 등이 있다. 높이 85m의 관립차인 '테크노스타', 101m의 깜깜한 동굴 속을 지나면서 여러 괴물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꾸며져 있는 '공포의 집' 등이 갖춰져 엑스포 직후에는 가족 위탁 단지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취재진이 엑스포랜드를 방문했을 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내부 시설들이 고장나 보수하느라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지난해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오사카 엑스포랜



오사카 엑스포 부지에 조성된 일본정원의 물창한 숲. 평일에는 입장객을 찾아보기 어려워 한적하다

계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활용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부대시설 운영 난 오사카 여수세계박람회 '타산지석'

드에서 롤러코스터가 이탈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오사카 엑스포랜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궤도에서 벗어나 큰 충격이 발생하는 바람에 여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엑스포랜드는 오사카 세계박람회 이후 수익증대를

위해 만들어져 주변 호텔을 포함해 연간 입장객이 최대 4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만박기념공원 내에 조성된 일본정원에는 연간 150만 명여의 관람객이 찾지만 자체 수입만으로는 적자 를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엑스포가 끝난 후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오사카만국박람회기념재단'은 독립행정기관으로 48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대표적인 놀이 시설인 엑스포랜드와 호텔, 레포츠시설, 주차장 등을 대여해 수익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엑스포랜드는 간헐적인 시설물 고장 등으로 본래 기대했던 엑스포 사후 활용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천 200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흥행 몰이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사카 엑스포 사후 활용 실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타산지석'이다.

여수엑스포는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수족관이나 해양박물관, 해양 레포츠 등에 관련된 부대시설 건립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후 부속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보다 현실적이고 치밀한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 즉 엑스포를 치른 후 본 행사 시설물의 활용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엑스포 단지를 중심으로 들어설 사후시설 건립 계획과 고려 유치, 관리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또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등 후속사업에 대해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엑스포 개최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사카=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오사카만국박람회기념재단

히라타 기요시 영업추진과장

"세계 박람회 개최 후 수익을 높히기 위해 무슨 시설물을 남겨야 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히라타 기요시(50) '오사카만국박람회기념재단' 영업추진과장은 "엑스포의 성공은 대회 준비와 진행, 사후관리 단계로 평가해야 하는 데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시설물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설물 활용 통한

수익 창출 중요"

사후 활용을 위해 어떤 시설물을 남겨야 할지 등을 치밀하게 계산해 건축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엑스포가 끝난 후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맡을 조직도 미리 구상해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고 히라타 과장은 조언했다.

"엑스포 관련 사후관리 기구에 정치인 출신 등의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경영이나 시설 유지보수 등에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장기활용이 가능하다"는 '경험'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히라타 과장은 "여수엑스포의 경우 수려한 해양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다면 행사 후에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인동심일부동산

☎ 02-223-1140, 5210 월 011-802-2522
(광주광역 신봉동,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2-297-4585 월 011-604-6295
(첨단구 부업 ALC빌딩 2층)

★ 급매 매

첨단인근 바이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대세대주택, 둘류하고, 복지실내시설

첨단중심상입지의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정시 2008년 7월 314평

매 70만원 (월 45만, 135평)

비밀호수정원 부근 유통지역 100평

첨단 원룸 건물 매매

대 68평 건 145 원룸 17 쓰리룸 1개

보 7000만 원 495만 매 65억 3천만

대 70평 대 10평 원룸 5개

보 2000만 원 480만 매 68천만

대 70평 건 126 원룸 6 투룸 3 주

인 6평 3개 보 8억 2천만 월 180만

매 4억 1천만

대 68평 건 127평 +주차장 투룸 4 원룸 보 8800만 월 300만

매 4200만 매 4억 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기동 부현④ 부근

상수녹지 900평

인생동 바이 증통④ 부근

상수녹지 900평

도전동 공단 곳 1000평부근 450평

700평 공정 창고 적합

복구 지 100평 30m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기든 첫집, 창고, 공장 적합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 061-833-6669 월 010-8004-6669

·여수·고흥 바닷가

매설밭 1300평 득량만 바

닷가 인접(매실수학) 평당 5만원 (경치최고)

·고흥·농목장용지

임야 2500평 고흥경기현장 근

거리 위치(학 치원면) 가동, 남

한, 관리지역, 평당 2만원

·첨고·득량도선

바닷가 해안면 700평 평

당 3만원 (낚시터, 별장지)

최적)

·고흥·조선소근거리

상가부지, 시외버스터미널

(별) 4차선로로변 8000평

평, 평당 50만원

·고흥바닷가

유자, 마실농장 3천평 대

전리 해수욕장주변, 경치

최고 평당 7만원

첨단동 공단 곳 1000평부근 450평

700평 공정 창고 적합

복구 지 100평 30m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기든 첫집, 창고, 공장 적합

법원 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열)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구역/층간고

봉우리 무등피크 32/3동 95평/4층/2층

승마장 80평/4층/2층

한국원전 32/6동 85평/5층/2층

전원동 한신 32/1동 104평/5층/5층

한국원전 104/19 34평/5층/2층

한국원전 104/19 34평/5층/2층